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휠체어 사용 편리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2016. 10. 22

이건호 이동윤 이상범 이강민 이두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시 공공시설 내 휠체어 사용 편리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이건호 이동윤 이상범 이강민 이두호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몇 달 전에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시위가 수원역 앞 육교에서 일어났고 수시로 장애인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휠체어를 탄 조원을 통해서 휠체어 사용이 얼마나 편리하고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사를 진행하였다.

나. 사회문화적 영역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많은 시설이 따로 요구된다. 그래서 장애인은 배려 받아야 하고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최근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 시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확인할 것이고, 이를 개선할 방안 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다. 경제적 영역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많은 세금이 요구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는 경제적 문제와 항상 부딪히게 된다.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고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경제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2. 탐사 과정

탐사 1일차(2016.10.19.)

1) 탐사 경로



2) 탐사 과정

① 도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10:00 ~ 11:00)

- 휠체어 이용자의 도담동 보건소와 도서관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지 조사함.
- 휠체어로 주변 상가에 접근이 가능한지와 ATM기기의 사용이 가능한지 조사함.
- 횡단보도 통행 시간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절한지 조사함.

②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11:00 ~ 12:00)

- 아름동 주민센터와 공주세무서세종납세지원센터가 휠체어 사용에 용이한지 조사함.

③ 아름동 해피라움 (12:00 ~ 1:30)

- 아름동 해피라움에 위치한 식당과 상가들로의 휠체어의 진입이 용이한지 조사함.

④ 아름동 우체국, 경찰서 (1:30 ~ 2:30)

-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서 우체국과 경찰서로 진입할 수 있는지 조사함.

⑤ 세종 CGV (2:30 ~ 6:00)

- 휠체어 사용자가 스스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는지 조사함.
- 휠체어 전용 좌석이 아닌 일반 좌석에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지 조사함.

⑥ 인 더 키친 (6:00 ~ 8:00)

- 휠체어 사용자가 일반적인 음식점에서의 식사가 가능한지 조사함.

나. 탐사 2일차(2016.10.20)

1) 탐사 경로



① 세종정부청사(10:00 ~ 11:00)

-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한 세종정부청사 옥탑공원 관광을 진행하고, 휠체어에 탄 공무원이 옥탑공원을 비롯하여 정부청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함.

② 세종시 홈플러스(11:00 ~ 1:00)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방문하여 휠체어 사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함.

③ 국립 세종 도서관(1:00 ~ 2:00)

- 휠체어 장애인들이 국립 세종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탐사함.

④ 세종시 호수공원(2:00 ~ 4:30)

-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에서 장애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함.

⑤ 아름동 해피라움(4:30 ~ 7:00)

- 주요 상업지구인 해피라움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조사함.

3. 탐구 결과

가. 1일차

1) 학교

학교 교문 경사도가 급해서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고, 학교 교문 턱이 휠체어 이동에 방해된다. 학교 교문 앞 고르지 못한 바닥 벽돌이 휠체어 이동에 방해되었다.

2) 도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가 휠체어 승하차에 불편하다. 주차구역에 턱은 없어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고, 주차구역의 바닥 벽돌 상태도 양호하였다. 승강기 내 휠체어 전용 버튼 있었고, 승강기 앞 복도 폭이 넓어 타고내릴 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도서관 앞문이 다 열리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다. 도서관 반대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했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경사가 양호했고, 손잡이도 있었다. 바닥 재질이 마찰이 커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아 안전했다.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상태가 양호했지만 미는 형태의 문으로 혼자서 화장실 출입이 힘들었다.

신한은행 ATM 박스에 경사로는 있으나 문을 혼자서 못 열어서 출입이 불가능했고, 편의점 앞에 경사가 너무 급하고 계단만 있어 편의점 출입이 불가능했다.

횡단보도 턱이 있어 횡단 시 어려웠고, 턱을 넘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뒤로 끌어야 했으며 횡단보도 앞 경사가 매우 급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건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3초 정도 짧았다.

3) 음식점: 신사우동

셀프시스템 이용이 불편하였고, 음식점 앞 경사가 너무 급했다. 미는 형태의 문이어서 혼자 못 들어갔다. 하지만 식탁 높이가 꽤 높아 휠체어에 탄 채로 식사가 가능했다. 가게에 들어갈 때 경사로는 대체적으로 너무 급했고, 상가 내에는 경사로는 있어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상가 내 승강기와 화장실도 양호했다.

4) 은행

휠체어를 타고도 환전 등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의자가 있어 휠체어 이동이 불편했다. 높이가 낮은 은행 ATM 이용이 가능했고 번호표도 혼자 뽑을 수 있었다.

5) 관공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모두 미는 문이어서 혼자서는 출입이 힘들었고 ATM 이용이 불편했다.

6) 아름동 주민종합센터

입구가 자동문이어서 출입이 편했다. 승강기 내 장애인용 버튼 있었고 승강기 옆에 경사로는 있었다. 바닥 재질은 마찰이 큰 재질로 휠체어가 다니기 편했고, 장애인 주의 표지판이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 상태가 양호했다.

7) 아름동 동사무소

입구가 자동문이어서 혼자 출입이 가능하고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상태가 양호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혼자 열 수 없었다.

8) CGV 영화관

장애인석이나 맨 앞자리가 아니면 이용하기 불편했고, 경로마다 턱이 많아서 이동이 불편했다.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이 점검 중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무인예매가 가능했고 주문도 가능했다.

9) 음식점: in the kitchen

입구가 자동문이어서 혼자 출입은 가능했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는 어려웠다.

나. 2일차

1) 세종정부청사

주차장에 돌이 많아 휠체어로 이동이 힘들었다. 인도에도 돌이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웠고, 횡단보도에 턱이 있어 이동하기 어려웠다. 내부에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 편리했고, 회전문에 장애인용 버튼이 있었다. 공용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옥상 공원 가는 동안 미는 문이 많았다. 옥상 공원 가는 동안 경사로 존재옥상 공원의 중간 중간 턱이 있어 힘들었고, 내려올 때 경사가 너무 급했다.

2) 홈플러스

에스컬레이터를 혼자 이용할 수 없다. 주차장 내 자동문이 있어 마트 이용이 가능했다.

3) 음식점: 더쭈꾸미

지하에 있어서 이용이 어려웠다. 승강기 타고 이동했는데 승강기 입구 앞문의 폭이 너무 좁아 들어가기 힘들었다. 경사로 경사가 너무 급했다.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가 어렵다.

4) 세종도서관

장애인전용 화장실과 승강기가 있다. 안내서비스와 검색대, 무인 대출 시스템도 모두 이용이 가능했다. 주차장에서 휠체어 승하자가 불편했지만 주차장에 경사로가 있었고 입구가 자동문이어서 혼자서 출입이 가능했다.

5) 세종호수공원

호수공원으로 내려갈 때 승강기가 구비되어 있어 타고 내려갈 수 있었다. 바닥상태가 휠체어를 타기에 매우 좋지 않았고, 다리에 턱이 많아 힘들었다.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개발된 도시인만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장애

인 배려를 실천했을 것이라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표면적이기만한 장애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분명 장애인 마크가 도시의 여러 곳에 붙어 있었지만 세종 시립 도서관이나 아름동 주민 센터를 제외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턱없이 좁은 문이나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기 무리인 정부청사 외부인 주차장의 바닥, 들어가기에도 힘든 턱이 높은 상가가 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의 이익과 장애인들의 복지 사이를 저울질하고 장애인 복지를 못마땅하게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불편함 들이 존재한다.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불편함 들까지 조사하고 이와 같은 사소한 불편함 들을 해소해나가야 장애인들도 살기 적합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선 방안

1. 횡단보도 턱 최대한 낮게 조절
2. ATM 높이 조절
3. 바닥 재질을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고 편평하게 제작
4.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탈 수 있는 학원들은 낮은 층에 배치하여 승강기 사용에 불편함 제거
5. 복도 확장
6. 정부가 관리하는 곳 말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에 장애인 관련 규정 강화
7. 현관문 자동화

5. 활동 후기

이강민 : 우리 학교가 세종시에 위치해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안에서만 보내었기에 세종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인문자연탐사에서 세종시를 직접 걸어보면서 세종시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다. 또한 우리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정도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갑자기 휠체어를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한 점들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두호 : 가끔씩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안 걸어도 되니까 아무리 멀리가도 힘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평지라도 팔로 바퀴를 굴리는 휠체어가 훨씬 힘이 많이 들었고 건물이나 상가 앞에 있는 턱 때문에 건물 안으로의 진입도 원활하지 않았다. 게다가 턱에 경사가 설치되어 있다 해도 그 경사의 대부분이 휠체어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급했

다. 과연 현재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충분한지 또 현재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번 인문 자연탐사를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아직 세상이 많이 불편하고 아직 필요한 것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호 : 인문자연탐사활동을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인이 어느 곳을 가도 불편하고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사람까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배려하고 도와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획도 시인 세종시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곳은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탐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더 나아져서 장애인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동윤 : 3일 동안 인문자연탐사활동을 하면서 세종시의 여러 공공장소 곳곳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사로, 버튼식 자동문 등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꽤 많았고 아예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이동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다. 직접 세종시의 여러 공공장소를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하여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생기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상범 : 이 탐사를 계획할 당시에는 동윤이가 힘들 계획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귀찮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 같다. 제대로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얼핏 봐서는 그냥 고치면 문제없을 것 같아 보인다. 쉽게 개선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문제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고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힘들고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관통하는 문제들은 더 그렇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비장애인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도 그럴 수 있는지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6. 참고 문헌

- ▶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2년)